

장애 형제와 가정에서 공유하는 음악 경험 형태에 따른 비장애 아동의 형제 관계 인식 및 장애 수용도*

곽윤**

장애 아동에게 있어 비장애 형제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장애 아동 가정에서 형제가 실제 경험하는 음악 활동의 형태, 유형, 빈도를 알아보고 그 수준에 따라 비장애 아동의 형제 관계 인식 및 장애 수용도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만 18세 이하의 발달장애 아동을 형제로 둔 만 9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비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 내 장애 형제와의 놀이 및 음악 경험과 그에 따른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각 문항별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음악 공유 경험의 유형, 수준, 강도에 따른 형제 관계 인식과 장애 수용도의 차이를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장애 형제와의 음악 공유 경험이 있는 비장애 아동이 지각하는 장애 형제에 대한 친밀성과 장애 수용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특히, 형제간 음악 활동 동안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소통의 균형성 등의 구체적 수준과는 상관없이 비장애 아동이 장애 형제에 대해 지각하는 친밀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애 수용도는 형제간 상호작용이 없거나 비장애 아동이 장애 형제를 주도하는 경우, 장애 형제에게 양보하며 진행하거나 동등하게 소통하는 경우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장애-비장애 형제가 공유하는 음악 경험의 고유한 의미와 이에 따른 비장애 아동의 인식과 관련된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핵심어: 비장애 형제, 음악 공유 경험, 가정 내 음악 활용, 형제 관계

*본 논문은 주저자의 석사학위논문(2024)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주저자 및 교신저자: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음악치료사, 음악중재전문가(KCMT) (kymt249@gmail.com)

I. 서론

비장애 형제는 장애 아동과 수평적인 관계를 맺으며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신체적·정서적 등 다양한 발달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최근에는 이들의 역할이 장애 아동의 치료교육적 접근에서 가지는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Banda, 2015; Chang, 2021). 형제 자매(이하, 형제)는 아동이 최초로 경험하는 또래집단이자 개인의 사회화에 가장 긴 시간 동안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Joo & Lee, 2016), 일반 아동뿐만 아니라 장애 아동을 포함해 발달기에 있는 다양한 아동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Im, 2010). 형제간에 공유되는 경험은 사회 및 학교에서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Kang, 2021; Koh, 2022; Pike, Coldwell, & Dunn, 2005), 선행 연구에서는 아동기에 다양하고 충분한 형제 관계 및 상호작용을 충분히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한다(Lee & Kweon, 2009).

이러한 중요한 영향에 반해, 장애 아동을 형제로 둔 비장애 아동은 장애 아동의 발달적 이슈로 인해 상호 호혜적이고 동등한 형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Stoneman, 2005). 장애 아동을 형제로 둔 비장애 아동은 생애 전반에 걸쳐 장애 형제를 돌보거나 돕는 경우가 많고(Shin, 2002), 이로 인해 형제 관계에서 적절한 정서적 교류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비장애 아동에게 적응적 이슈와 정서적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된다(Koh, 2022).

선행 연구에서는 비장애 아동이 경험하는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개입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향후 정서 조절과 사회 기술 등에 있어 지속적인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비장애 형제에 대한 개입이 성인기 이전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반면(Joo & Lee, 2016; Park & Seo, 2023), 비장애 형제가 가진 장애에 대한 인식이나 이들의 지원 요구들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성인기를 대상으로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성인기와 아동기는 발달적 이슈가 다를 뿐 아니라 성인 대상 연구 결과를 아동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한 선행 연구에서는 비장애 형제들을 대상으로 형제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와 기대에 대해 조사하였고, 비장애 형제의 연령대, 성별, 장애 유형에 따라, 기대와 욕구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You, 2002). 그럼에도 지금까지 개발된 프로그램들은 형제들의 실제적 요구에 충분히 기초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음악이 가정에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고, 가정 구성원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최근 장애 아동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음악 활용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선행 연구들은 장애 아동의 가정에서 활용되는 음악은 장애 아동에게 정서 및 사회적 발달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가정 내의 음악 환경이 장애 아동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등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Rushton & Kossyvaki, 2021; Steinberg, Shivers, Liu, Cirelli, & Lense, 2021). 또한, 가정 내의 음악 활용으로 인한 혜택에 대한 보호자의 인식에 따라 지각하는 양육효능감의 수준이 달라짐을 보고하였는데(Sa & Kim, 2017),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장애 아동의 가정에서 음악을 활용하는 경우, 각 가정의 고유한 상황이나 음악을 통한 관계적 혜택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족 중심 접근(family-centered care)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더불어 장애 형제와 비장애 아동을 위한 음악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비장애 형제간 상호작용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음악 기반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 선행 연구들은 장애-비장애 형제가 함께 중재에 참여하였을 때, 형제간 상호작용과 친밀도, 긍정적 관계적 경험 및 장애 형제의 공동주의 등이 향상되는 결과를 보고하며(Cho & Moon, 2022; Jung, 2023; Montgomery, 2015), 이러한 중재가 장애-비장애 형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반면, 이러한 중재를 통해 형제간 직접적인 접촉과 관심이 증가할 수 있어, 전문가의 체계적 개입이 없는 일상생활에서는 형제 갈등이나 경쟁의식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보다 장기적인 개입이나 가정 환경을 포함한 보다 확장된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Jung, 2023).

이와 같이 비장애 아동을 포함하는 중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실제로 형제 상호작용 향상을 위해 악기연주를 적용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다양한 중재의 개발이 필요하며, 적절한 중재의 개발 및 제공을 위해서는 이들의 인식과 필요를 조사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실제로 장애-비장애 형제의 관계를 지원하는 중재를 시행하기 전 연구자가 형제 관계에서 비장애 아동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필요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했을 때, 비장애 아동의 이해도와 장애 수용도가 높아져 효과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Kim & Lee, 2020). 이러한 점에서 고유한 필요와 인식을 조사하는 연구는 중재의 실제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장애 아동 가정의 상황을 조사한 연구는 부모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향(Jeong & Yoo, 2022; Jin, 2022)이 많았고, 장애 아동의 가족 지원에 있어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 관계 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De Caroli & Sagone, 2013)에도 불구하고, 비장애 아동이 직접 응답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비장애 아동이 가정 내에서 경험하는 것과 그에 따른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제 비장애 아동은 장애 형제와 어떠한 음악 경험을 공유하는지, 그 유형과 수준에 따라 비장애 아동이 지각하는 장애 형제에 대한 인식과 장애 수용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비장애 아동과 장애 형제는 가정에서 어떠한 음악 경험을 공유하는가?
 - 1-1. 비장애 아동과 장애 형제의 놀이 과정에서 음악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떠한가?
 - 1-2. 비장애 아동과 장애 형제의 음악 활동은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는가?
 - 1-3. 비장애 아동과 장애 형제의 음악 활동 시 상호작용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가?

2. 비장애 아동과 장애 형제가 가정에서 공유하는 음악 경험에 따라 비장애 아동의 장애 형제에 대한 형제 관계 인식에 차이를 보이는가?
 - 2-1. 비장애 아동과 장애 형제가 가정에서 공유하는 음악 경험 유무에 따라 비장애 아동의 장애 형제에 대한 형제 관계 인식에 차이를 보이는가?
 - 2-2. 비장애 아동과 장애 형제가 가정에서 공유하는 음악 경험 수준에 따라 비장애 아동의 장애 형제에 대한 형제 관계 인식에 차이를 보이는가?

3. 비장애 아동과 장애 형제가 가정에서 공유하는 음악 경험에 따라 비장애 아동의 장애 수용도에 차이를 보이는가?
 - 3-1. 비장애 아동과 장애 형제가 가정에서 공유하는 음악 경험 유무에 따라 비장애 아동의 장애 수용도에 차이를 보이는가?
 - 3-2. 비장애 아동과 장애 형제가 가정에서 공유하는 음악 경험 수준에 따라 비장애 아동의 장애 수용도에 차이를 보이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대상자 모집과 연구의 모든 절차, 윤리적 고려사항 등에 대해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고(ewha-202404-0017-01), 그 절차를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만 9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비장애 아동이다. 연구에 참여하는 비장애 아동은 신경발달장애로 진단받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을 순위 혹은 손아래 형제로 두며 최근 5년 안에 장애 형제와 같은 공간에서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 절차

본 설문조사는 2024년 4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은 Google 설문조사 프로그램을 통해 구성되었고,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가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자조모임 사이트에서 담당자의 연구 절차에 대한 승인을 얻어 공고를 게재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장애 형제가 주로 이용하는 서울시 내 복지관에서 승인을 받아 복지관 내 알림판에 안내문을 게시하였다. 이러한 공고를 통해 자녀의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적으로 밝힌 부모에 한 해 연구 참여 동의를 받았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만 9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므로, 동의를 획득

한 부모에 한 해 부모가 기재한 아동의 전화번호로 설문 URL 주소를 제공하였고, 아동이 직접 전달된 URL로 접속하여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하도록 하였다. 동의 획득 과정에서, 대상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상자가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은 문장으로 문항의 개수와 소요 시간 등을 안내한 연구 설명문을 제시하였고 이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 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3. 연구 도구

1) 연구자가 구성한 설문지

본 연구의 설문지는 대상자의 일반적 정보, 가정 내 놀이 공유 경험, 가정 내 음악 공유 경험 및 인식의 3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비장애 아동이 인식하는 형제 관계와 장애 수용도를 평정하는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가정 내 공유 경험은 장애 형제와 비장애 아동이 실제로 공유하는 활동, 놀이의 유형, 시간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음악 공유 경험과 관련하여서는 음악 경험 유형, 수준, 강도에 대해 비장애 아동이 인식하고 느끼는 바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대한 내용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Researcher-constructed Survey Items

Category		Question items	Number of items
Basic information	Information about the neurotypical child	Gender, age	2
	Information about the sibling with disability	Gender, age, and diagnosis	3
	Family information		1
Shared experiences at home	Shared experiences at home	Time spent on shared daily activities	2
		Time and types of shared play activities	3
Shared music experiences at home	Experiences	Presence of shared music experiences between siblings	10
		Amount of music use during play	
		Frequency and duration of shared music experiences	
		Level of interaction	
		Criteria for music selection for music experiences	
Participants' perception	Participants' perception	Perceptions on emotions felt during music experiences	12
		Perceived enjoyment and challenges during music experiences	
Total			33

2) 형제 관계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형제 관계 척도(Sibling Relationship Questionnaire: SRQ)는 Furman과 Buhrmester(1985)가 개발하고 Park과 Chung(1996)이 번안한 것으로, 형제 관계를 구성하는 요인에 대한 비장애 형제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척도이다. 본 척도는 친밀성(21문항), 형제 갈등(9문항), 상대적 지위·권력(12문항), 경쟁의식(편애지각)(6문항)의 총 네 가지의 요인으로 구성되며, 문항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항상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상대적 지위·권력의 일부 문항(4, 6, 20, 22, 36, 38)은 역으로 점수화한다. 척도 전체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 = .84$ 이고, 요인별 내적 합치도(α)는 친밀성 .93, 형제 갈등 .85, 상대적 지위·권력 .81, 경쟁의식(편애지각) .77이다.

3) 장애 인식 및 수용태도 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장애 인식 및 수용태도 검사 도구는 Favazza와 Odom(1997)이 제작한 유아용 수용척도(Acceptance Scale for Kindergartners: ASK)와 Esposito와 Peach(1983)의 Primary Student Survey of Handicapped Person(PSSH)를 Yoo(2009)가 번안·수정하여 사용한 척도이다. 총 1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대상자들에게 질문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장애 개념에 대한 6문항의 질문은 제외하였다. 총 11개의 문항을 3점 Likert 척도로 문항에 따라 ‘아니다’, ‘잘 모르겠다’, ‘그렇다’로 평정한다. 장애 인식 및 수용태도 척도는 두 개의 범주로 구분되고, 장애에 대한 인식은 5문항으로 신뢰도 .78, 장애 아동에 대한 수용태도는 6문항으로 신뢰도는 .83이다.

4. 타당도 검증

본 설문지의 구성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장애 아동을 형제로 둔 비장애 아동의 발달과 특성에 적합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발달장애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5년 이상의 음악치료 임상 경험이 있는 음악치료 전문가 1인에게 문항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이후 문항 순서, 주제와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수정 및 보완하였다.

5. 데이터 분석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코딩 후 IBM SPSS Statistics 2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 참여자인 비장애 아동과 장애 형제의 기본 정보와 가정 내 활동 및 놀이 공유 현황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문항별로 빈도와 백분율, 혹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음악 공유 경험과 관련하여 유형, 수준, 강도를 범주로 나누어 이

에 따라 장애 수용도, 형제 관계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음악 공유 경험 유무에 따른 형제간 놀이 활동 시 상호작용 수준의 차이는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III. 결 과

1. 연구 참여자 정보

본 조사의 설문지는 총 61부가 회수되었고, 그 중 미응답 및 불완전한 응답을 포함한 2부를 제외한 59부가 최종적으로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총 59명으로, 지적장애·자폐스펙트럼장애 등의 신경발달장애로 진단받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형제로 둔 만 9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비장애 아동이다. 대상자(비장애 아동) 성별은 남아가 27명(45.8%), 여아가 32명(54.2%)이었고, 장애 형제의 성별은 남 33명(55.9%), 여 26명(44.1%)이었다. 장애 형제의 진단명은 지적장애 81.4%, 자폐스펙트럼장애가 18.6%로 집계되었다.

장애 형제와 대상자와의 관계에서는 손위 38명(64.4%), 손아래 21명(35.6%)으로 장애 형제가 손위인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은 59명 중 45명(76.3%)이 부모, 조부모, 형제와 함께 거주 중이라고 응답하였고, 14명(23.7%)은 부모, 형제와 함께 거주한다고 응답하였다. 관련된 내용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2> Demographic Information of Participants

Variable	N = 59
Demographic information of neurotypical child	
Sex (male : female), n (%)	27 (45.8%) : 32 (54.2%)
Mean age (years), M ± SD	9.89 ± 0.6
Demographic information of the participant's sibling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ex of sibling (male : female), n (%)	33 (55.9%) : 26 (44.1%)
Mean age of sibling (years), M ± SD	10.67 ± 2.3
Diagnosis of sibling, n (%)	
Intellectual disability (ID)	48 (81.4%)
Autism spectrum disorder (ASD)	11 (18.6%)
Relationship with participant (neurotypical) (older : younger), n (%)	38 (64.4%) : 21 (35.6%)
Family composition, n (%)	
Parents + sibling	14 (23.7%)
Parents + grandparents + sibling	45 (76.3%)

2. 가정에서의 대상자-장애 형제간 놀이 및 음악 활동 현황

1) 가정에서의 대상자-장애 형제간 놀이 현황

대상자와 장애 형제가 가정에서 공유된 놀이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59명 중 56명(94.9%)이 공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에 한해 세부 내용을 조사한 결과, 일상의 활동을 공유하는 시간은 일 평균 8.6시간, 그 중 놀이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은 일 평균 2.4시간으로 조사되었다. 형제간 놀이 수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서로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거나 역할을 나누어 진행’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4.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간을 함께 보내지만 각자 다른 놀이를 진행’이 21.4%, ‘장난감이나 도구 등을 공유하지만 적극적으로 상호작용 없이 진행’이 23.2%로 놀이 중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그룹과 일어나지 않는 그룹의 수치가 비슷하였다. 진행되는 활동을 묻는 문항에서는 블록 쌓기, 역할 놀이와 같이 ‘도구나 장난감을 사용한 놀이’가 78.6%의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가정에서의 대상자-장애 형제간 음악 활동 현황

대상자와 장애 형제가 가정에서 공유된 음악 경험의 유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59명 중 32명(54.2%)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상자와 장애 형제와의 놀이 중 음악 활동을 하며 진행하는 비중을 묻는 문항은 Likert 10점 척도로 1점을 ‘음악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10점을 ‘음악 활동만 한다’로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대상자들은 평균 7.1의 비중으로 놀이 중 음악 활동을 진행한다고 응답하였다. 음악 경험의 주 평균 진행 빈도와 시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주 2-3회’ 진행이 8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회 평균 진행 시간은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이 43.8%로 가장 높게 집계되었으며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이 37.4%로 그 뒤를 이었다.

장애 형제와의 음악 경험 시 활동의 형태를 질문한 결과 ‘악기나 소리가 나는 도구 등을 같이 연주함’이 53.1%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고,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에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같이 음악을 만들’이 18.8%로 뒤를 이었다. 장애 형제와의 음악 활동이 진행되는 형태를 조사한 결과 ‘형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짐’에 32명 중 16명이 응답하며 50%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형제와 노래나 연주 차례를 주고받거나 적당한 소통을 함’에 13명(40.6%)이 응답하였다. 가장 많이 경험하는 음악 활동 종류를 묻는 문항에서는 ‘악기연주’가 59.4%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음악 활동 시 사용하는 음악의 선곡은 ‘대상자와 장애 형제가 함께 상의하며 선택함’이 81.2%로 가장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으며, 실제 사용한 음악은 ‘가요’가 65.6%의 비율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고 ‘동요’가 28.1%로 그 뒤를 이었다.

3. 장애 형제와의 음악 활동에 대한 인식

가정 내 장애 형제와의 음악 경험에 대한 비장애 아동의 만족도를 Likert 5점 척도로 조사했을 때, 그 결과 평균 4.1점으로 대부분의 응답이 4점 ‘그렇다’ 이상으로 응답되었다. 또한 장애 형제와의 음악 활동 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정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장애 형제와 동등하게 의견을 나누며 함께 맞춰감’이 71.9%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다. ‘비장애 아동이 주도하고 장애 형제는 그에 따라감’과 ‘장애 형제에게 맞춰서 양보하며 진행함’은 각각 4명(12.5%)이 응답하였고, ‘장애 형제와 의견을 나누거나 말하는 것이 거의 없음’은 1명(3.1%)이 응답하였다.

대상자에게 장애 형제와의 음악 활동 시 형제간 서로에게 보이는 관심 및 흥미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관련 문항들을 구성하고 Likert 10점 척도로 1점은 ‘거의 관심을 보이지/흥미를 느끼지 않는다’, 10점은 ‘많은 관심을 보인다/흥미를 느낀다’로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조사 결과, 대상자들은 음악 활동 시 장애 형제가 자신에게 보이는 관심을 평균 7.9점으로, 자신이 장애 형제에게 보이는 관심은 평균 8.1점으로 응답하였다. 음악 활동 시 장애 형제가 음악 활동에 느끼는 흥미는 평균 8.3점, 자신이 음악 활동에 느끼는 흥미는 평균 8.3점으로 응답하였다.

본 연구의 응답자 총 59명 중 27명(45.8%)은 가정 내에서 장애 형제와 음악을 활용하여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는 ‘형제가 음악을 선호하지 않음’에 20명(74.1%)이 응답하며 가장 많이 응답되었다. ‘형제와 어떻게 함께 해야 할지 모르겠음’에는 4명(14.8%)이 응답하며 뒤를 이었다.

4. 장애 형제와의 음악 경험 유무 및 수준에 따른 인식 차이

1) 장애 형제와의 음악 경험 유무에 따른 형제 관계 인식, 장애 수용도, 놀이 수준의 차이

음악 공유 경험 유무에 따라 지각하는 형제 관계 및 장애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응답 결과를 두 그룹(장애 형제와의 음악 공유 경험이 있는 그룹 32명, 장애 형제와의 음악 공유 경험이 없는 그룹 27명, 총 59명)으로 나누었다. 먼저 형제 관계에 있어서는 각 하위 영역별 그룹 점수를 비교했을 때 친밀성 영역에서는 음악 경험 그룹($M=85.4$)이 음악 미경험 그룹($M=74.7$)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점수가 낮을수록 형제 관계에 있어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하위 영역(형제 갈등, 상대적 지위·권력, 경쟁의식)에 있어서는 음악 경험이 있는 그룹이 음악 경험이 없는 그룹보다 모두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영역별 점수 비교는 <Table 3>에 제시되었다. 또한, 그 차이를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여 비교했을 때, 하위 영역 중 친밀성($p < .001$)과 경쟁의식($p = .008$) 영역에서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친밀성과 경쟁의식에 있어서는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형제 갈등, 상대적 지위·권력에서는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가정에서 장애 형제와 음악 경험이 있을 때 대상자가 장애 형제에 대해 지각하는 친밀감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경쟁의식 영역에서는 음악 경험 그룹이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점수는 대상자는 부모가 장애 형제를 신경 쓴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부모의 관심이 자신보다 형제에게 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기보다는 장애 형제에 대한 부모의 관심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 수용도에 있어서는 음악 경험이 있는 그룹이 32.2점으로 음악 경험이 없는 그룹과 비교하여 4.5점 더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장애 형제와의 음악 경험 유무와 비장애 아동이 지각하는 장애 수용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가정에서 장애 형제와 음악을 사용하여 시간을 보낸 경험이 있을 때 대상자의 장애 수용도가 비교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내용은 <Table 3>에 제시하였다.

<Table 3> Sibling Relationships and Acceptance of Disability in Neurotypical Children Based on the Presence of Shared Music Experiences (N = 59)

Variable	Presence of shared music experience with sibling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M</i> ± <i>SD</i>		<i>t</i>	<i>p</i>
	Yes (<i>n</i> = 32)	No (<i>n</i> = 27)		
Sibling relationships				
Intimacy	85.4 ± 7.2	74.7 ± 12.2	-4.174	< .001***
Conflict	29.7 ± 4.6	31.8 ± 4.6	1.786	.079
Relative status · power	36.8 ± 2.7	38.1 ± 6.3	1.102	.275
Rivalry	24.8 ± 2.2	23.0 ± 3.0	2.754	.008**
Acceptance of Disability	32.2 ± 2.4	27.7 ± 2.6	-6.995	< .001***

p* < .01. *p* < .001.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장애 형제와 놀이 경험이 있는 비장애 아동 중 음악 공유 경험의 유무에 따라 형제간 놀이 활동에서의 상호작용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음악 경험 유무에 따라 놀이 활동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음악 경험이 있는 그룹에서는 놀이 활동 시 대상자와 장애 형제가 역할을 나누어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음악 경험이 없는 그룹에서는 놀이 도구는 공유하지만 적극적인 상호작용은 이루어지지 않거나 단순히 놀이 공간만을 공유하며 각자 다른 놀이를 진행하는 형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련된 내용은 <Table 4>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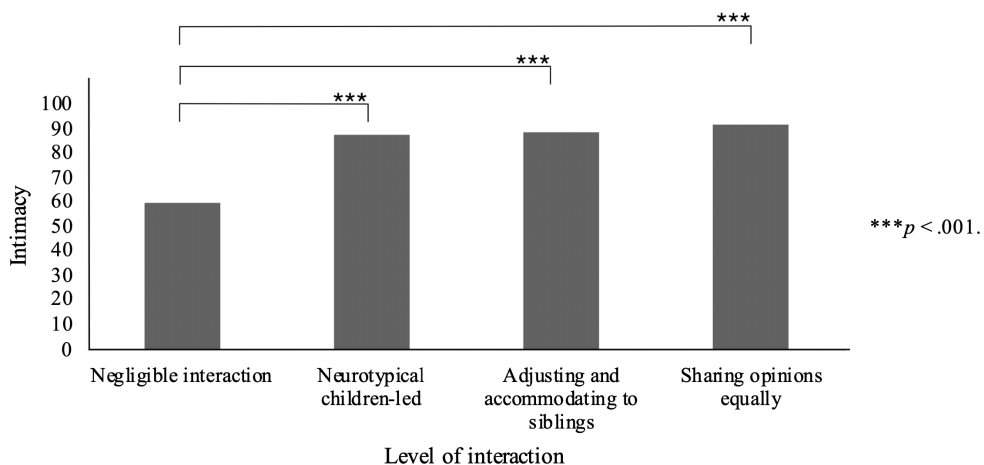
<Table 4> Level of Interaction During Sibling Play Based on the Presence of Shared Music Experiences (N = 56)

Level of interaction in sibling play	Presence of shared music experience with sibling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n (%)		χ^2	p
	Yes (n = 32)	No (n = 24)		
Sharing space but engaging in different play activities	3 (9.4%)	9 (37.5%)	36.918	<.001***
Sharing toys and tools without active interaction	1 (3.1%)	12 (50.0%)		
Sharing toys and tools with some interaction	3 (9.4%)	3 (12.5%)		
Taking turns or engaging in active interaction	25 (78.1%)	0 (0.0%)		

***p < .001.

2) 장애 형제와의 음악 활동 시 상호작용 수준에 따른 비장애 아동의 인식

장애 형제와의 음악 활동 시 상호작용 수준에 따라 비장애 아동이 지각하는 친밀성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음악 활동 진행 시 장애 형제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대상자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상자보다 장애 형제에 대한 친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두 그룹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사후 검정 분석 결과, $F(3, 28) = 12.168, p < .001$ 로 장애 형제와 음악 경험 있는 대상자가 음악 경험 없는 대상자보다 장애 형제에 대한 친밀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Table 5>에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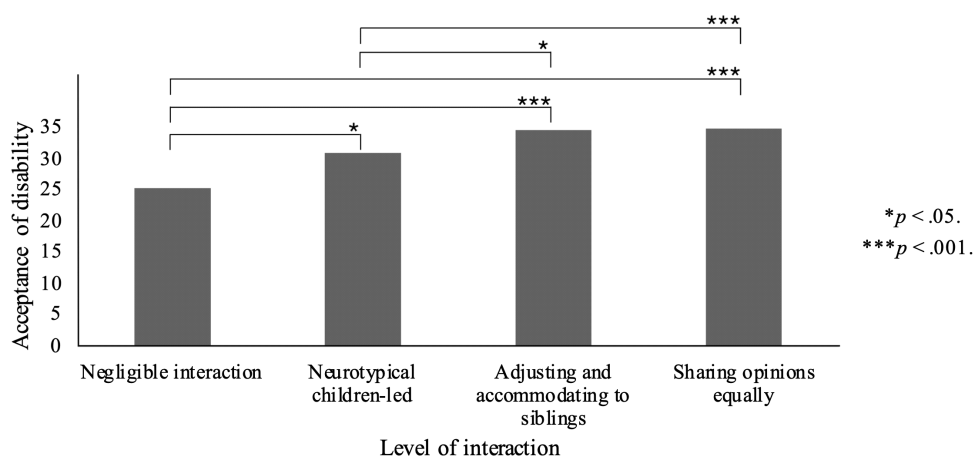
<Figure 1> Intimacy of neurotypical children to their sibling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based on the level of interaction during music experiences

<Table 5> Post-hoc Analysis Results of Intimacy and Acceptance of Disability Depending on the Level of Interaction During Music Activities

Perception of neurotypical children	Main effect of interaction level		Post-hoc analysis*
	F(3, 28)	p	
Intimacy with sibling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12.168	< .001***	a-b***, a-c***, a-d***
Disability acceptance	19.149	< .001***	a-b*, a-c***, a-d***, b-c*, b-d***

Note. The Bonferroni correction was applied for the post-hoc analysis. a: Rarely sharing opinions or talking with sibling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b: The neurotypical children lead and the sibling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ollow; c: Proceeding by adjusting to and accommodating the sibling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d: Sharing opinions equally with the sibling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adjusting together
 * $p < .05$. *** $p < .001$.

또한, 장애 형제와의 음악 활동 시 상호작용 수준에 따라 비장애 아동이 지각하는 장애 수용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형제간 상호작용 수준에 따라 대상자의 장애 수용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분석 결과, $F(3, 28) = 19.149, p < .001$ 로 상호작용이 거의 없는 그룹은 나머지 3개 그룹(즉, 비장애 아동이 주도, 장애 형제에게 배려 및 양보, 장애 형제와 동등하게 의견 나눔)보다 장애 수용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장애 아동이 주도하는 그룹은 상호작용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2개 그룹(즉, 장애 형제에게 배려 및 양보, 장애 형제와 동등하게 의견 나눔)보다 장애 수용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형제에게 배려하거나 양보한다는 그룹과 장애 형제와 동등하게 의견을 나누는 그룹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igure 2> Acceptance of disability of neurotypical children based on the level of interaction during music experiences

장애 형제와의 가정 내 음악 활동 시 비장애 아동이 지각하는 좋은 점과 어려웠던 점을 서술 형태로 응답한 것을 범주화하여 분석하였을 때, 좋은 점은 관계적 측면, 음악적 측면, 개인적 측면의 총 3가지 범주로 나뉠 수 있었다. 3개 범주 중 ‘관계적 측면’이 23명(71.9%)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고 ‘음악적 측면’에는 8명(25.0%), ‘개인적 측면’은 1명(3.1%)이 응답하였다. 그 중에서도 대상자는 ‘장애 형제와의 정서적 공유 및 공감’과 ‘친밀감과 같이 형제 관계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언급하였는데, 이는 형제간 같은 활동을 하며 함께 보내는 시간이 형제 관계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응답 범주는 <Table 6>에 제시되었으며, 세부 응답 예시는 <Appendix 1>에 첨부되었다.

<Table 6> Perceived Positive Aspects of Shared Music Experiences of Sibling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N = 32)

Category	Subcategory	n (%)
Relational aspect	Emotional sharing and empathy between each other	6 (18.8%)
	Formation of bonds	5 (15.6%)
	Play experiences with siblings/Expansion of resources	4 (12.5%)
	Discovery of the value of togetherness	3 (9.4%)
	Cooperative experiences with siblings	3 (9.4%)
	Recognition of the uniqueness of their siblings with disabilities	2 (6.2%)
Musical aspect	Sharing of musical ideas	6 (18.8%)
	Improvement of musical skills	2 (6.2%)
Personal aspect	Positive emotional changes	1 (3.1%)

또한 대상자가 장애 형제와 함께 음악 활동을 할 때 어려웠던 점으로는 ‘장애 형제와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 17명(53.1%)으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다. ‘상호작용에 있어서의 어려움’에 7명(21.9%), ‘장애 형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한 어려움에 4명(12.5%)이 응답하며 뒤를 이었다. 응답 범주는 <Table 7>에 제시되었으며, 세부 응답의 예시는 <Appendix 2>에 첨부되었다.

<Table 7> Perceived Challenges in Shared Music Experiences of Sibling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N = 32)

Category	Subcategory	n (%)
Differences between siblings	Differences in preferences for music/music experiences	9 (28.1%)
	Differences in attention or interest in participation in activities	8 (25.0%)
Difficulties in interactions	Difficulties in coordinating opinions	7 (21.9%)
Negative perceptions on siblings with disabilities	Difficulties in accepting a sibling's behavior or attitude	4 (12.5%)
Difficulties arised from the characteristics or symptoms of siblings with disabilities	Difficulties arised from insistence on repetition/homogeneity	2 (6.3%)
Personal aspects	Burden of engaging in music activities	1 (3.1%)
No challenges		1 (3.1%)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장애 아동 가정에서 장애 형제를 둔 비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형제간 놀이와 음악 경험의 현황과 수준 및 비장애 아동의 인식을 조사하여 경험의 유형과 수준에 따른 비장애 아동의 장애 및 장애 형제에 대한 인식과 비장애 아동의 필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비장애 아동의 대부분(94.9%)이 장애 형제와 놀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이 중 절반(44.6%)에 해당하는 아동들은 물리적 시간을 공유하지만 그 안에서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로 비장애 아동은 가정에서 장애 형제와 함께 좋아하는 놀이 등을 하며 많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지만 주로 단순한 놀이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는 선행 연구(Lee, Kweon, & Lee, 2010)와 같은 맥락에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화된 놀이의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선행 연구를 통해 가정에서 장애 아동과 가족 구성원이 활용할 수 있는 음악 활동이 구성원 간 상호작용이나 친밀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보고된 점(Yang, 2023)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통해 장애-비장애 형제가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음악 기반 활동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장애-비장애 형제가 가정 내에서 음악 활동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따라 비장애 아동의 친밀도와 장애 수용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형제와 음악 활동을 공유하고 있는 비장애 아동의 형제에 대한 친밀도와 장애 수용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비장애 형제에게 상호적 악기연주 등의 음악치료 프로그램 제공 후 상호작용 향상 및 긍정적 형제 관계 인식 증가가 나타났다는 선행 연구(Cho & Moon, 2022; Jung, 2023; Kang, 2021)와 같은 맥락의 결과를 나타낸다. 장애 아동과의 긍정적인 정서의 경험 등이 아동 발달기에 있어 장애를 수용하는 태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Lee, 2014)을 고려할 때, 놀이 상황에서의 음악적 환경이 공유된 경험의 즐거움이나 긍정적인 인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장애 형제와 놀이 경험이 있는 비장애 아동 중 장애 형제와 음악 경험이 있는 아동이 형제간 놀이 활동 시에도 적극적인 상호작용으로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악 활동이 활동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거나, 활발하게 소통을 하는 과정을 통해 형제간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매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반면, 음악의 공유 경험이 없는 비장애 아동의 대다수는 장애 형제와 놀이할 때 적극적인 상호작용 없이 병행 놀이 수준에서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악이 아닌 다른 매체를 활용한 놀이가 장애-비장애 형제 사이에서 유사한 수준의 인지, 언어 기술 발달을 전제함을 요구하는 반면, 음악 활동은 아동의 인지적, 언어적 수준과 관계없이 다양한 수준의 참여가 가능하고, 다양한 형태로 조정될 수 있다는 선행 연구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Jang, 2012). 이러한 결과는 음악 활동이 형제간 다양한 상호 교류의 맥락을 제공하며, 단순한 경험 공유를 넘어서 적극적인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셋째, 음악 경험의 단순한 공유뿐만 아니라 실제 음악 경험에서 이루어진 상호작용의 수준에 따라 형제 관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상호작용의 수준 측면에서 형제간 상호작용이나 소통이 균형적인지, 주도권이 비장애 아동이나 장애 형제 중 누구에게 있는지와 상관없이 상호작용이 어느 정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즉, 경험은 공유하지만 직접적인 소통이나 상호작용은 없는 경우)보다 형제에 대한 친밀감을 유의하게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 아동들이 실제 진행한다고 응답한 악기연주, 노래부르기 등의 음악 활동은 활동 과정에서 언어적, 비언어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이는 상호 간의 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Chong, 2022). 또한 비음악적 환경에서의 놀이는 인지·언어적인 발달 수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장애 형제가 자신과 다름을 보다 명확하게 인지하게 되거나 비장애 아동이 장애 형제를 돌보거나 이끌어야 하는 역할이나 책임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Lee et al., 2010), 음악은 개별 아동의 수준과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비장애 아동 역시 형제에 대한 부담보다는 공유의 즐거움의 경험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 친밀감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넷째, 장애 형제에 대한 친밀감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없는 경우에 지각하는 친밀감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던 반면, 장애 수용도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이 있더라도 비장애 아동이 주도하는 경우에는 보다 협력적인 형태의 상호작용을 경험했던 아동에 비해 장애 수용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 수용도가 낮은 아동일수록 장애 형제와의 놀이에서 상호작용이 제한적이거나 자신이 놀이를 주도하는 경우가 많은 결과를 의미하기도 한다. 본 연구 결과는 장애를 수용하는 태도가 단순히 공유된 놀이 경험의 유무에 따라 변화하기보다는, 경험하는 놀이의 구체적인 양상이나 질적 내용이 중요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선행 연구(Ison et al., 2010)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 다른 선행 연구(Lim, 2013)는 일반 아동과 장애 아동이 서로 동등한 관계 속에서 협력하며 음악 활동을 경험했을 때 장애 수용도가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비장애 형제간 상호작용이나 인식에 개입하는 음악치료 중재 프로그램 개발 시 상호작용에서 각 아동이 갖는 역할이나 상호작용의 수준(즉, 동등하거나 협력적인지, 누군가에게 주도권이 많이 부여되는지)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추후 장애-비장애 형제를 위한 음악 중재 프로그램 개발 시 각 형제들의 인식, 형제 관계 등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면 보다 더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장애 아동 가정 내에서 장애 형제와 비장애 아동의 음악 활동 활용 현황 및 수준과 그에 따른 형제간 상호작용의 관계 등을 바탕으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중재의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음악 활동의 질적인 측면과 상호작용 전략 측면이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의 설문지에서 장애-비장애 형제의 놀이 경험에 대한 설문 항목이 음악 경험 설문 항목에 비해 다소 부족하여 음악 경험의 데이터와 질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양이 적어 분석에 제한이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음악 경험과 놀이 경험에 대한 설문 항목을 평행하게 제공하여 음악 경험의 이점들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해볼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 Banda, D. R. (2015). Review of sibling interventions with children with autism. *Education and Training in Autism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50*(3), 303-315.
- Chang, J. (2021). A study on trends and qualitative indicators analysis of sibling intervention research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Journal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25*(3), 217-247.
- Cho, E., & Moon, S. (2022). The effects of piano duo-based music therapy program on disabled and non-disabled children's sibling relationships and interactions. *Journal of Music Therapy*

- and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3(1), 47-65.
- Chong, H. J. (2022). *Influence of music on human behavior* (2nd ed.). Seoul: Hakjisa.
- De Caroli, M. E., & Sagone, E. (2013). Siblings and disability: A study on social attitudes toward disabled brothers and sisters. *Procedia: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93, 1217-1223.
- Esposito, B. G., & Peach, W. J. (1983). Changing attitudes of preschool children toward handicapped person. *Exceptional Children*, 49(4), 361-363.
- Favazza, P. C., & Odom, S. L. (1997). Promoting positive attitudes of kindergarten-age children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Exceptional Children*, 63(3), 405-418.
- Furman, W., & Buhrmester, D. (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qualities of sibling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56(2), 448-461.
- Im, J. H. (2010). *A comparative study on sibling relationships and subjective well-being of siblings of children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Changwon.
- Ison, N., McIntyre, S., Rothery, S., Smithers-Sheedy, H., Goldsmith, S., Parsonage, S., & Foy, L. (2010). 'Just like you': A disability awareness programme for children that enhanced knowledge, attitudes and acceptance: Pilot study findings. *Developmental Neurorehabilitation*, 13(5), 360-368.
- Jang, H. (2012). A study about music elements affecting social relationships between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peers. *Special Education Research*, 11(1), 189-214.
- Jeong, H. S., & Yoo, G. E. (2022). The use of music at the homes of children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and parental perceptions of it. *Korean Journa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65(2), 313-334.
- Jin, L. (2022). *A survey on the use of music and the perception of emotional bonds in the home of parents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Joo, J., & Lee, B. (2016). A study on needs of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of psychological support services for sibling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6(1), 187-210.
- Jung, J. W. (2023). Improving social interaction between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and their neurotypical siblings through a cooperative music playing intervention. *Journal of Music and Human Behavior*, 20(2), 61-88.
- Kang, S. B. (2021). *The effects of interaction-promoting music therapy program on stress and between siblings social interaction in non-disabled children with disabled sibling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 Kim, S., & Lee, S. (2020). Effects of sibling-mediated interaction intervention on sibling interaction of young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Persons with Autism*, 20(1), 1-22.
- Koh, H. (2022). Exploring academic, psychological-emotional, and career support for sibling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24(2), 1-28.
- Lee, B. N. (2014). *The effect of inclusive play activity at early morning classes on non-handicapped students awareness and acceptance attitude toward handicapped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cheon.
- Lee, M. S., & Kweon, H. Y. (2009). Consideration for the positive adjustment and development of siblings who have a child with a disability.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25(1), 141-163.
- Lee, M., Kweon, H., & Lee, M. (2010). A study of perspectives of siblings with children with disabilities: Focused on the experiences of siblings in an upper grade of elementary school.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12(2), 127-148.
- Lim, S. (2013). The effects of orff music program on the acceptance attitude to the disabled children in integrated class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for Curriculum and Instruction*, 6(3), 21-37.
- Montgomery, J. A. (2015). *Effects of music on joint attention between individuals with autism and neurotypical sibling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olorado State University, Fort Collins.
- Park, S., & Seo, K. (2023). Case studies on psycho-social difficulties of adult non-disabled sibling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Retrospective review across the life cycle.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25(2), 121-158.
- Park, Y. Y., & Chung, O. B. (1996).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 children's sibling relationships and children's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7(1), 189-212.
- Pike, A., Coldwell, J., & Dunn, J. F. (2005). Sibling relationships in early/middle childhood: Links with individual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9(4), 523-532.
- Rushton, R., & Kossyvakis, L. (2021). The role of music within the home-lives of young people with profound and multiple learning disabilities: Parental perspectives. *British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50(1), 29-40.
- Sa, Y., & Kim, S. (2017). Relationship between use of music in parenting and parenting efficacy for parents of infants with autism. *Journal of Parent Education*, 9(4), 217-234.
- Shin, H. Y. (2002). *Study on problem behavior and sibling relationship of adolescents without disability who have developmentally disabled sibling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Steinberg, S., Shivers, C. M., Liu, T., Cirelli, L. K., & Lense, M. D. (2021). Survey of the home music environment of children with various developmental profile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75*, 101296.
- Stoneman, Z. (2005). Sibling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Research themes. *Mental Retardation, 43*(5), 339-350.
- Yang, H. Y. (2023). Feasibility of a parent-led home-based music program to enhance parental competence an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for parents of children with ASD. *Journal of Music and Human Behavior, 20*(2), 89-113.
- Yoo, S. (2009). *The effects of the integral literature activities using the anti-bias picture book on the recognitions and the acceptance attitude of preschool children without disabilities to preschool children with disabili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 You, H. K. (2002). A study on the sibling support programs for disabled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Yongin.

- 게재신청일: 2024. 10. 17.
- 수정투고일: 2024. 11. 08.
- 게재확정일: 2024. 11. 11.

Perceived Sibling Relationship and Acceptance of Disability in Neurotypical Children Depending on Shared Music Experiences at Home With Sibling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Kwak, Yun**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types, levels and frequencies of musical activities shared by neurotypical siblings and their sibling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ir influences on perceived sibling relationships. An online survey comprising 92 items was conducted with neurotypical children aged 9 to 12 who have sibling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under the age of 18. Descriptive statistics were used to analyze responses, and one-way ANOVA was conducted to examine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sibling relationships and disability acceptance depending on the intensity and types of shared musical experienc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when neurotypical children shared musical experiences with their siblings with disabilities, their perceived closeness to their siblings and acceptance of the disability were significantly higher ($p < .001$). Furthermore, perceptions varied depending on the level of shared musical experiences. When interactions occurred during musical activities between siblings, neurotypical children perceived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closeness towards their siblings, regardless of the specific balance or level of communication. Conversely, disability acceptance was significantly lower both when there was no interaction during the musical activities and when neurotypical children solely led the activities. This study provides significant insights into shared music experiences at home between siblings with disabilities and the influences of these experiences on perceived sibling relationships.

Keywords: neurotypical siblings, shared music experiences, music use at home, sibling relationship

*This article was based on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2024).

**First and corresponding author: Music Therapist, Municipal Seodaemun Deaf Welfare Center, Korean Certified Music Therapist(KCMT) (kymt249@gmail.com)

<Appendix 1> 장애 형제와의 공유된 음악 경험에서 지각하는 긍정적 측면 (N = 32)

범주	세부 응답 예시	n (%)
관계적 측면		
서로 간의 정서적 공유 및 공감	“서로 공감할 수 있어서 좋다.”	6 (18.8%)
유대감의 형성	“더 깊은 끈끈한 정이 생긴다.”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며 더욱 친밀해진다.”	5 (15.6%)
형제와의 놀이 경험/자원의 확장	“특별한 추억을 만든다.”	4 (12.5%)
함께함의 가치 발견	“같이 놀 수 있어서 좋다.”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낸다.” “함께하는 과정에서 웃음과 재미를 공유할 수 있다.”	3 (9.4%)
형제와의 협력 경험	“서로를 위한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협력한다.”	3 (9.4%)
장애 형제의 고유성 확인	“음악에 집중하는 동안은 언니가 사람 같아 보인다.”	2 (6.2%)
음악적 측면		
음악적 아이디어의 공유	“서로에게 음악적 영감을 준다.” “서로의 음악적 취향을 알아가며 새로운 음악을 발견한다.”	6 (18.8%)
음악 기술의 향상	“서로를 도와가며 음악적 기술을 향상시킨다.”	2 (6.2%)
개인적 측면		
긍정적인 정서 변화	“음악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1 (3.1%)

<Appendix 2> 장애 형제와의 공유된 음악 경험에서 지각하는 어려웠던 측면		(N = 32)
범주	세부 응답 내용	n (%)
장애 형제와의 차이		
음악/음악 경험에 대한 선호의 차이	“음악적 취향의 충돌로 인한 의견 차이” “좋아하는 노래가 조금 다르다.”	9 (28.1%)
활동 참여의 집중도나 관심의 차이	“연습을 소홀히 하는 데에 대한 불만”	8 (25.0%)
상호작용에 있어서의 어려움		
의견 조율의 어려움	“자신의 아이디어가 수용되지 않을 때의 불만” “합의된 곡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	7 (21.9%)
장애 형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형제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한 수용의 어려움	“가끔 답답하다.”	4 (12.5%)
장애 형제의 특성이나 증상으로 야기되는 어려움		
반복/동질성에 대한 고집으로 인한 어려움	“언니의 마음에 안 드는 음악이 나오면 행동이 난폭해진다.” “오빠가 원하는 노래만 들으려고 할 때”	2 (6.3%)
개인적 측면		
음악 활동에 대한 부담	“연주 압박감으로 인해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	1 (3.1%)
없음		1 (3.1%)